

### 한땀 한땀 수놓아 '오월 얼굴' 찾았다



24일 광주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 '오월의 발견-THE FACE(얼굴)' 퍼포먼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5·18 영령 103인 얼굴 퀴팅 퍼포먼스

신근부의 총칼에 귀가 잘리고 코가 떨어져 나갔던 5·18 민중항쟁 영령들의 얼굴이 '한 땀 한 땀' 제모습을 찾았다.

24일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상무동 5·18 기념재단 기념홀에서 열린 '오월의 발견-THE FACE(얼굴)' 퍼포먼스. 말레이시아 작가 창 응 차(32·chang yong chiah)씨의 지도를 받으며 어린이·교사·시민 103명이 손에 바늘을 들고 5월 영령 103인의 얼굴을 '퀴팅'(quilting·수놓는 작업)으로 표현했다.

빛 바랜 사진 한 장씩을 받아든 참가자들은 하얀 천에 그려진 밑바탕에 3시간여 동안 검정실로 수(縫)를 놓았다. 하얀 천을 통과하는 바늘 땀이 늘어갈수록 고등학생 희생자 전영진(당시 19세)의 눈도 시민군 윤상원(당시 31)

의 입도 역사가 제자리를 찾듯 선명하게 드러났다.

부모와 함께 참여한 김지원(9·일신초 2년)군은 "팔도 눈도 아프지만 얼굴 모습을 직접 수 놓으니까 어떤 분인지 더욱 궁금해졌다"며 "인터넷으로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5·18 묘지에 가서 참배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 창 응 차씨는 "과거 인물인 영령들과 현재의 인물인 시민들이 서로 만나 과거에 묻힌 항쟁이 아니라 현재 내 곁에 머문 5월로 만들기 위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소개했다.

참가자들이 수 놓은 5월 영령 103인의 얼굴은 '제20주년 6·10 항쟁' 기념행사가 끝나는 오는 6월 13일까지 5·18 기념재단 1층 전시실에 전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공항 소음 관련 소송 내달 중점 심리 원고 9만여명... 재판 결과 '주목'

### 광주지법 5건·서울지법 1건 진행 중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6월 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현재 광주지법과 서울지법에서 진행 중인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6건. 이 가운데 5건은 광주지법에서, 나머지 1건은 서울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신청자(원고)는 광주지법이 5만8천여 명, 서울지법이 3만2천여 명으로 무려 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의 소송액은 지역별로 1인당 ▲1만원 ▲5만2천원 ▲100만원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배상 청구 금액은 환경영향평가 후 나온 소음 수치에 따라 금액을 추가 요구하기로 결정, 손해배상 액수는 수백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그동안 환경부·항공안전본부·공군 제1전투비행단 등의 사실확인 조회·회신 등을 거쳤고, 2~3차례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다.

법원은 또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 기간 등을 따지기 위해 원고들의 전입시기와 거주기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변호인 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며, 다음달 26일 재판 관을 속행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지역은 서구 ▲덕흥동 ▲동곡동 ▲치평동, 광산구 ▲신촌동 ▲송대동 ▲우산동 ▲송정동 ▲도산동으로 광주공항 인근은 대부분 포함됐다.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에

▲변론준비 기일=서면을 통해 당사자 간의 쟁점 정리와 기일 전 증거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해당되는 지역은 모두 포함된 셈이다.

이 가운데 광산구 신촌·송대·우산동 등 광주공항과 가장 인접한 자연취락지구 주민 781명이 지난 2004년 5월12일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첫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을 이뤘다.

이듬해인 2005년 5월19일에는 광주지법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주민 1만 8천503명이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출하는 등 같은 해에만 5건의 소송이 이어졌다.

원고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지난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국국현·이하 대책위)다. 대책위는 광산구 23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확보한 원고인 3만1천25명의 명단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국 위원장은 "구체적인 배상청구 금액은 소송 진행 중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 위원장은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은 청력 상실·수면 방해·어린이 성장저해·교육환경 훼손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가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니원침 (7218) 김종두



### 大法 "060' 음란 폰팅은 상습 사기"

고용한 여성들을 마치 일반 여성 회원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비싼 통화료를 뜯어내는 속칭 '060' 음란 폰팅이 상습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여성과 통화할 수 있는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십만~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14명에게 벌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들이 일반 여성들과 만날 수 있다고 믿고서 30초당 500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내고 전화를 건 점이나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까지 가능하다고 피고인들이 선전한 점 등을 들어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통화 중 여성들이 '유급 회원'이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기는 하지만 남성들이 일반 여성 또는 유급 여성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고, 여성과 통화를 하기 전까지도 30초당 500원의 비싼 요금을 계속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급 회원이라는 음성 안내가 사기죄의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협뉴스

### 정신분열 30대 병원 탈출

### 버스터미널 등서 흥기난동

영암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경 영암 K병원에서 탈출, 난동을 부린 정신분열병 환자 신모(37)씨를 감도미수 혐의로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영암=김현기기자 hnkim@

### 전문대 졸업 후 기능대 갔지만... 취업 길 막막 목숨 끊어

### 20대 "가족들에 미안"

'벌써 두 번째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졸업을 해도 도저히 취업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어머니에게 죄스럽습니다.'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대학생이 가족들에게 부담 주는 것을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제 P대학 전기과 1년 김모(23)씨는 지난 23일 오후 어머니(51)와 두 누나 앞으로 각각 유서를 남기고 광주시 북구 청풍동 제4수원지에 투신, 자살했다.

유서는 '이불 장사를 하면서 매 학기 수백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학비를 대줬던 어머니와 그동안 자신의 용돈과 생활비를 쉼겨준 누나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가장 형편이 뻘이 어려운 줄 알면서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께 도움은 드리지 못할망정 오히려 피해만 끼치고 있으니 벌면복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C전문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일자리를 잡지못하자 올해 다시 전북에 있는 기능대학에 입학, 취업을 준비 중이었다. 김씨의 부친은 5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취직할 길이 막막하자 이를 비판,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들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 본사: (062)514-3002 ▶ 공장: (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 광주점: (062)525-9002 ▶ 전주점: (063)271-5051

옛사랑 성폭행 했다가 절도 들롱

○...헤어진 옛사랑을 만나 자신의 짐으로 데리고와 성폭행한 20대가 방 한 칸에 쌓아둔 장물 때문에 절도 행각이 들롱.

○...24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2·광주시 동구 금동)씨는 지난 11일 옛 애인 L(21·북구)씨를 집에서 성폭행했다가 1씨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경찰은 "이씨 집에 노트북과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쌓여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이씨 집을 수색해 출진 물건 10여 점을 발견.

○...경찰은 이씨를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30여 건의 빈집 및 차량 절도 사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경찰에서 이씨는 "4년 동안 사귀던 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글을 남겼는데 연락이 와서 마음을 풀 줄 알았다"고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주)조이트래블**

www.joy-travel.net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전화 (062) 234-3222

기억에 오래도록 간직될 가슴 설레이는 여행...

매년 1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조이트래블** 을 통해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광주에서 출발하는

**장사(장가계) 전세기 직항**

"人生不到張家界 百歲豈能稱老翁?"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중국 남방항공(CZ) 이용  
6월 16일~11월 28일까지  
광주-장사 매주 2회(수,토), 총47회 운항!!

코드	상 품 명	여행기간	적용기간	출발일	상 품 가
KCZP-1	[장사/장가계] -보통호 유람선, 천자산 케이블카	3박4일	6/16~7/13	수	549,000
KCZP-2	[장사/장가계/황석채] - 황석채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599,000
KCZP-3	[장사/장가계/천문산] - 천문산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629,000
KCZP-4	[장사 GOLF] (54H) - 청죽호C.C, 지산C.C, 용호C.C	3박4일	6/16~7/13	수	699,000
KCZP-5	[장사 GOLF] (72H) - 청죽호C.C, 지산C.C, 용호C.C, 청죽호C.C	4박5일	6/16~7/13	토	799,000

\* 공통포함사항 : 공항세, 출국세, 전정보험료, 현지공항세, 유류세,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관광): 단체비(18,000), 기사 가이드 봉사료 (1박당 10,000원)  
\* 불포함사항 (골프): 단체비(18,000), 기사 가이드 봉사료 (1박당 10,000원), 클럽하우스 중식, 캐디팁, 클럽 렌탈비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5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객 가입업체 \* 공통포함: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객보험 가입(보험금:1억원, 국내생활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역 / 전지역 \* 경비 없음 (단, 개인적인 팁,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출발인원 15명 이상 \* 상의요금은 환불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